남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

☞ 17면에서 계속

그게 사해질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광대무변하고 아주 영묘하고 진실한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 건지, 그냥 마음이라고 한 마디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 요렇게 마음을 갖고, 조렇게 갖는데는 뭐 대뇌에 꼭 찼다고 해도, 아니 좁쌀 알갱이만한 마음이라면 그 좁쌀 알갱이 만한 데서 허공에 꽉 차게 나와요. 진짜로 생각해본다면 서로를 서로가 흉보고 그럴 것이 하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이쪽은 저쪽 나무라거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컵 안에서 살면서 뭐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나쁜 일을 하면은 조언도 하고 그저 좋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내주는 거, 가난하면 마음을 내주고, 가난치 않으면은 보시도 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 아닐까요? 불교든 카톨릭교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도리이며 진리이며 의리며 사랑이란 말입니다. 값싼 사랑 말고요.

참자기 뿌리 믿어야

오늘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를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의 형상이 바로 당신의 형상이다,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법이 당신들의 생활법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쁠 때에는 일정례를 하되 아만과 아상을 버리게 하는 방편이다, 누구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고개 숙이기가 드물겠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자기 싹은 자기 뿌리한테 꼭 마음의 절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수없이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니까요.

또 한마디 할 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그럴 겁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안하고 뛰쳐나간다든가,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요 놈 자식아,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너는 쪽박을 차려고 그러느냐, 뭐를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욕을 해댑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죠. 왠줄 아십니까? 부부지간도 그렇죠. 네 탓 내 탓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런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깐.

자식도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 자식이라는 게,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처를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자부처라고 그러지. 그러나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많은데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

"부처님 마음과 법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법"

없죠. 자기 육신과 마음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지금 심사숙고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애들과 어른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문제들이 많죠? 위 사람 챙기고 아랫사람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런데도 쓰이는 거죠. 뿐만 아니죠, 일거수 일투족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발전을 해라, 실천을 해봐라,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공에 스윗치를 누른다면, 즉 입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에게까지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고장난 거지 껍데기인 육체가 허수아비 모양으로 뛰어들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차츰 차츰 나가는 일이 없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였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하하.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모두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고 그럽니다.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처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난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화를 자기가 돋구니까 살얼음판을 딛고 가다가 모닥불을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러고 또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던지고 불화가 나서 막 팽개치고 이럴 때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살얼음이 깨져서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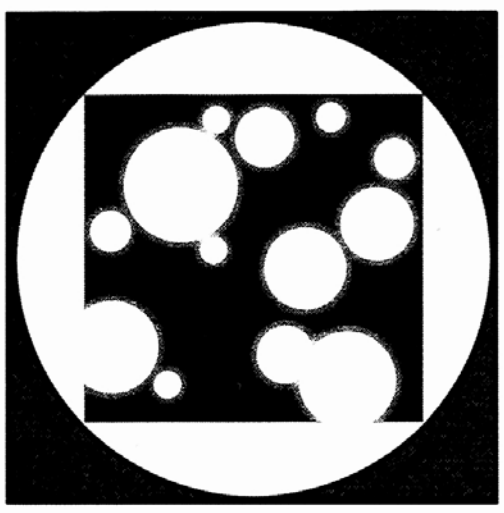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허덕이면서 어떻게 바둥바둥해서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빠졌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배안에선 선장에게 맡기듯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처의 중심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그 중생들이 만약에 문수보살 · 관세음보살 부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가만히 앉았으면 가는 데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방편을 쓰고 저걸로 방편을 쓰고 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설법을 해주셨고 또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해 놓으신 그 용어는 너무나 여러분이 어려워서, 나는 현실에 난 사람이니까 현실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치하면서, 또 그거를 현실로서 대치해서만이 여러분한테 입으로만 말을 한다면, 이론으로만 말을 한다면 말이 그냥 한데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레를 중심에서 낀 기둥과 같은 그런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책을 읽고 말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는 사이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사이가 없느냐? 내 몸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고 의식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하겠습니까? 내 정수에 수없이 엮어 내려온 진리가 바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했다고 자부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대복을 받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의 탓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점, 남을 밉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금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모습도 거기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모습은 옷 더러우면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거나 똑 같죠?

예전에 다닐 때 눈이 오면 나무에 올라가서 가장구를 깔고 자다보니까 그냥 떨어졌지 뭡니까? 떨어져서 이가 두 개가 부러지고, 또 들아다니면서 소금으로라도 닦았으면 좋은련만 모래로 닦았기 때문에 이가 죄 그냥 버려졌지 뭡니까. 이가 그렇게 되니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

가난하면 마음 내주고 여유 있으면 돕고 사는게 도리

고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단속을 잘 하세요. 몸이 없어도 공부를 못합니다,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몸을 소중하게 하세요. 부모가 고생하고 주신 거니까요. 부모가 육을 줬지만 종자는 종자의 근본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을 소중히 알지 못하면은 몸 속에 있는 생명들도 소중히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는 고생하지 않고 살아야 살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자: 먼 이국 땅까지 오셔서 감로설법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불가에서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을 살고 또 현생에 지은 업으로 내생을 산다고 합니다. 전생에 좋은 업을 지으면은 현생에 좋게 살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현생에서 고통을 받고, 또 현생에서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내생에 나쁘게 태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과 현세가 묶여있고 현세와 내세가 묶여있고, 그래서 삼세인과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겹쳐있다고 해서 중첩인과설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만약에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 가지고 현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려먹고 참회를 하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과거에 지은 업을 현세에서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세에 받지 않고, 즉 말하자면 탕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참회하면 업 탕감되는지?

▲스님: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다고요. 근데 왜 없다고 말을 하느냐. 업이라는 거,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인과성이 다 없다. 또는 업도 없고 죄도 없다는 것은 오래도록 마음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놓을 때에 비로소 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셋트에 노래 넣었다가 듣기 싫어서 다른 노래 녹음하면 앞서의 노래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스님네들한테 그럽니다. 무조건이다. 죄가 있다 없다 하면은 건질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다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다.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떼어놓으면 하나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또 하나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 업이 붙습니까? 안 그럴까요?

※위 법문은 1996년 6월 22일 미국 뉴욕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님! 불교TV 나옵니다.

2002년 3월부터 전국 산중사찰 및 난시청 지역에서도 불교TV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2월말까지 예약가입 할인 행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입자에 대한 혜택
- ●예약가입기간: 2001년 12월3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 ●예약가입기간에만 위성수신기를 한대당 69,000원에 할인판매 (3월부터 정상가격으로 환원 200,000원이상)
- ●가입비 및 설치비: (40,000원) 무료
- ●1개월 무료 시청

월 시청료
- ●SKY-ON(불교TV를 비롯하여 32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8,000원**
- ●SKY-무비(SKY-ON+영화채널 7개등 총 39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12,000원**
- ●SKY-패밀리(전채널 시청 총 72개 채널+오디오 40채널): **월 18,000원**

btn

예 약 가 입 전 화
불교TV 사업부 02-3270-3366~7

※수신기 설치는 2002년 2월부터 3월중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 수신기(KBS시청 가능수신기)는 희망시 교체가능 합니다.

